

David Emanuel 박사, 세션 4, 출애굽기 시편 106편

© 2024 데이비드 에마누엘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출애굽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David Emanuel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세션, 시편 106편, 틴새에 서서입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시편 4편인 시편 106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방금 시편 105편을 보았습니다. 이 시편에는 Standing in the Gap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편의 메시지는 성경적 중보기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진행하면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은 애도이다.

우리는 이것을 아직 시편 78편이나 시편 105편이나 136편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헤르만 궁켈의 장르 중 하나인 애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나 이 시편을 기록한 당시의 사람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맥락, 지혜의 맥락, 예배의 맥락, 찬양의 맥락에서 사용된 출애굽 모티브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도의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동일한 출애굽 이야기가 다양한 측면을 취하여 매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이전에 시편이 서로 매력을 느낀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05편 바로 뒤에 시편 106편이 있습니다. 둘 다 출애굽기 시편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출애굽기 시편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똑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출애굽기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역사적인 낭독회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거기에 모두 똑같은 출애굽기 조각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그들이 엄청나게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각 시편 기자는 그가 홍보하고 싶은 프로그램과 세부 사항에 따라 출애굽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매우 독특합니다. 큰 차이점은 여기에 있는 대비입니다.

이전 시편에서는 모든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거기에는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서 우리는 특히 같은 기간과 사막 기간을 다루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장밋빛이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역과 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모세가 백성에게 요구했던 모델에 미치지 못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범위는 바다를 건너 유배지까지 쭉 이어진다. 그래서 시편 105편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에서부터 가는 대신, 우리는 겹쳐서 갑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비록 모호한 용어이긴 하지만, 군주제 시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군주제 직전의 시편 78편에도 군주제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왕들의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정 시대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어떤 깊이나 세부사항도 다루지 않습니다.

이 시편에서도 우리는 아주 특이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모두 똑같지는 않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활동적인 캐릭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비느와 같은 인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문학적인 측면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복잡한 문자이거나 둥근 문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립서비스와 반역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람들이 훨씬 더 확고해지고, 훨씬 더 활동적이 되며, 우리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와 비교할 때 훨씬 더 죄악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느슨한 문학적 출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히브리어와 영어의 차이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상호텍스트적 작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텍스트에 대한 분명한 암시가 있으며 우리는 계속 진행하면서 그 중 일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아주 아주 특별한 또 다른 점은 이 시편이 개인의 고백 기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 나, 자아에 대한 개념은 이 시편에서 매우 많이 표현되지만 출애굽기의 다른 시편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들은 모두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서로 엄청나게 다릅니다. 차이점을 식별하고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은 시편을 개별적으로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시편 데이트에 관해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시편의 연대를 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이나 성경 문헌과 같은 작품의 연대를 측정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인물, 데이터가 있는 사건 또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찾습니다. 일단 우리가 특정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알고 특정 시대에 언급된 특정 개인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특정 인물과 관련하여 시편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시편에서는 그 성격이 시적이며 종종 환경이나 개인과 관련하여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대를 측정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 특별한 시편이 실제로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단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연대를 정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편을 세 시대에 걸쳐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성서적 문헌이다. 우리는 군주제 이전이 아니라 군주제 이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망명 이전이라고 말합시다. 망명 전, 망명 후가 있습니다.

이는 대략 587년이나 포로기간과 그 후 70년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문헌의 연대를 측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포로 이전 시대, 군주제 시대, 포배 기간 동안 쓰여진 것, 포로 이후 시대에 쓰여진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전부입니다.

그 이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음, 이 시편은 794년이나 798년에 쓰여졌습니다.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기준 틀, 정확한 기준 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시편 106편을 포로 생활에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배는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70년 의 유배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짧은 창처럼 보이지만 이 기간 동안 무언가가 쓰여졌다는 매우 명확한 단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편 자체에는 송영 외에 마지막 절인 이 구절이 있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열방 중에서 우리를 모으소서. 여기에 있는 이 진술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학문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아마도 587년 유배 기간 동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논쟁을 벌이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다른 망명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담겨 있는 역사를 볼 때, 시편의 언어를 살펴보면, 이 시편이 망명 중에 중보 기도로 쓰여졌다고 가정하는 것이 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해당 기능에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이것이 그 기원이 아닐까 강하게 의심할 것 같습니다.

바빌론 강변에서 시편 137편과 같은 시편을 생각해 보면 이 시편도 포로 생활을 가리키는 또 다른 시편입니다. 항상 그렇다고 말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었고, 항상 그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명 환경을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억해야 할 입문 구조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시편 자체에 대한 서문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다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시편의 정점이자, 순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바다에서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올바른 반응에 관한 최고점 역할을 합니다. 이 시점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질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모든 것은 도덕적 쇠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반역하고,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더하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에서 구원하시는 이 큰 사건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에서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임명된 지도자들을 시기하게 됩니다. 이때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많은 죄와 반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금송아지의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인간 형상인 모세가 긍정적인 일을 하고,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틈새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성공적으로 중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이 표현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거부했고, 가데스에 또 다른 광야가 있었고, 그 사막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느아스가 서서 모세와 비슷한 방식으로 심판을 회피하는 바알브올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피니어스야, 우리는 다른 시편 어디에도 그가 언급된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비느아스는 그의 행동 때문에 이 시편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78편에는 아무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윗뿐이었습니다. 사막 시나리오에서는 개인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136편도 마찬가지고, 시편 10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언급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은 긍정적이라고 여겨지거나 어떻게든 정의롭다고 여겨지는 어떤 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그런 점에서 매우 다릅니다.

그러다가 32장과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이것은 5월 므리바에서, 민수기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므리바 물입니다. 거기서 그가 정확히 무슨 잘못을 했는지 미스터리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걸 떠올리고 모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잘못을 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구절에는 죄의 일반적인 순환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실제로 이 특정 장소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한 성경 본문을 찾거나 식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지막 절은 민족 구원을 호소하는 구절이다. 그런 다음 송영을 합니다. 이제 나는 이 송영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시편에 유기적인 것이든 아니든 약간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 시편에 유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섯 권의 시편을 만들기 위해 특정 책에 추가된 송영의 일부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할 소개 요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전에 언급한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개인, 개인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내가 형통함을 보고 기뻐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시편의 매우 개인적인 측면이 이 시편을 독특하게 만듭니다. 다른 출애굽기 시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또한 여러 의미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도 갖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도 우리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것이 유월절 반전임을 여기에 두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는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행해진 일입니다. 마치 당신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원래 출애굽 세대가 먹었던 동일한 식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587년, 586년, 585년 어느 때든 망명 생활을 했던 시편 기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반전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백성들이 식사를 하면서 출애굽에 참여했다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도 내 조상들의 죄에 동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들만큼 죄가 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모두 사악하다고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이 가졌던 많은 책임을 소유하고 받아들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중재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유배를 초래한 다른 모든 일과 실제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바벨론에서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의 일부로 이 기도를 소유해야 하며, 그렇습니다. 나는 그 나라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나는 거기에 없었지만 여전히 비난의 일부를 갖고 있고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국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한 개인은 국가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로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가 시편에 행한 몇 가지 사건을 포함시켰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때 우리는 바다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집트 사용, 적, 증오, 적에 대한 동의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한 번 언급되었지만 형태학적 암시도 있습니다. Mitzarav 라는 흥미로운 문구가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먼저 쓴다면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나요? Mitzarav , 그의 적에게서. 이는 히브리어 Mitzrayim 과 유사합니다. 여기에서 이 문자들 중 일부 사이의 유사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영리한 암시를 얻었지만 적, 증오자, 대적이라는 동의어도 많이 얻었습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애굽에서의 구원을 회상하는 만큼, 그가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원수, 미워하는 자, 대적들로부터의 구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원수, 미워자, 대적, 즉 사실상 바벨론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에서의 구원으로 긍정적인 시작을 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훌륭해졌습니다. 바다가 책망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 구절에는 약간의 시적 변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다를 꾸짖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실제로 창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대 창조 신화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했던 일은 실제로 그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 물을 잠잠하게 하고 질책하고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된 다른 연결이 있지만, 그것이 다른 비디오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것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여기에 그려지는 것은 창조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와 같이 다른 본문에 나타나는 출애굽기를 자주 발견합니다. 당신은 창조를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언어가 홍해의 물이 갈라지고 갈라지는 것을 묘사하는 데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흔한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비디오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것이지만 말이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바다에서의 큰 기적 이후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그의 작품을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했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갑자기 힘이 빠지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암시는 분명히 민수기 11장과 메추라기의 규정을 가리킨다. 바로 여기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렬히 갈망했습니다. 이것은 탐욕스러운 욕망을 갖는 것으로 번역됩니다. 이제 이것은 일어날 일이 내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성경 본문을 언급할 때 그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성경 본문에서 독특한 문구를 가져와서 그것을 자신의 글 속에 직접 배치하여 그의 독자들이 그의 본문을 읽을 때 그 구절에 이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텍스트. 제가 볼 때, 시편 기자가 자신의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다면, 왜 우리 영어 번역자들은 똑같은 일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은 애완 동물입니다.

나는 번역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나는 모든 번역을 높이 평가하지만, 영어 번역자가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일이나 성경 해석자가 하는 일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본문에 거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것을 내려놓도록 합시다.

이것은 이 텍스트를 여기 아래에 있는 이 텍스트와 연결하는 것과 동일한 문구입니다. 그것은 민수기 11장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분의 권고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글썄요, 본문이나 민수기 본문에는 어느 정도 조바심이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또 다른 전통입니까, 아니면 포로 상태에 앉아 주변 상황을 묘사하는 그의 좌절감의 일부입니까? 인내심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삽입하고 있으며 아마도 그의 지역 사회에 우리도 그의 조언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상한 추가입니다. 작가 자신에게는 그것이 매우 중요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16-18절을 보면 이제 다단과 아비람에게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일어나 모세를 대적하여 이르되 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도다 하느니라 뭐하세요? 왜 리더십을 스스로 독식하고 있습니까? 그는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세 사람이 일어납니다.

시편은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키고 불이 그들의 무리를 삼키는 동일한 형벌을 회상합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가 적어도 우리 오경에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일한 처벌을 요구하지만 이는 매우 흥미로운 변화이며 우리는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대자 중 한 명이 누락된 것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는 다단과 아비람만 나옵니다.

고라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많은 주석가들이 우연히 발견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단순히 시편 기자가 콜라, 시적인 콜라에서 모든 것을 균형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이름을 추가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설명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라가 유명한 시편 학교인 시편론을 창설한 사람이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가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보호하고 이 특정 개인에게 그들을 드리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옆으로 미루고 '글쎄, 우리가 보는 시편에 이런 경우가 또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가 하나 또는 두 개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시적인 약어이거나 고라의 이름을 보호하는 것, 고라의 이름의 신성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옆두에 두고 계속해서 모세가 중보하는 첫 번째 중보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여기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금송아지 숭배를 가리킨다. 이것은 그들이 처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였으며 이것은 우리가 이미 본 메추라기 이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시편 78편과 마찬가지로 이 특정 저자는 성경 본문의 순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요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시편을 만들고, 그 자신의 창조물을 만들고 있으며, 사물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시편 기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대기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 이 내용은 7절과 연결됩니다.

아버지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계획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기억하면 순종하게 되고, 잊어버리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망각한 세대, 곧 광야 세대를 말하는 것과 달리 포로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모세가 중보자로 등장한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택하신 모세가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의 다른 시편에서는 모세가 재앙을 가져오는 자나 바다를 가르는 자로서가 아니라 중보자로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한 사람이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출애굽 전통의 예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매우 열렬히 꺼냅니다.

그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예를 들어보면, 와, 그는 그 예에서 자신을 모세의 인물로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고라에 대해 이야기했고, 고라에게 어떤 그들도 드리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고라를 생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송아지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Aaron은 여기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그가 Aaron의 이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려는 또 다른 질문입니까? 출애굽기의 실제 본문을 보면 아론이 하는 말과 변명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금을 넣었더니 이런 말이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을 이끈 것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에게 어떤 부정적인 수치심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초기 지도자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간단히 언급하고 싶은 현상의 예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텍스트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언급하겠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New International Version, New Living Translation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풀을 먹는 황소의 형상과 바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ESV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ESV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내 생각에 이것이 서기관들의 교정인 티쿤 하소프림(tikkun ha-sofrim)으로 알려진 현상의 18가지 사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 히브리어가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그러나 여기서 케보담, 이 단어는 그들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본문 자체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주석가들은 원문이 케보담(kevodam), 그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정 서사 번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곳에서도 알려진 현상입니다. 케 보담(kevodam), 그의 영광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포함시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황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황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바꾸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 티쿤 하소프림 뿐만 아니라 서기관이나 작가가 하나님을 보존하거나 성경적 인물을 보존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바꿀 것이라는 생각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떠오릅니다.

욥이 처음 병에 걸려 쓰러졌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판에서는 이렇게 읽게 될 것입니다. 왜 거룩하신 분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어는 그것을 읽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미하고 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저주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브살롬. 그건 정말 나쁘다.

정말 끔찍한 말이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의 신성함을 보존하기 위해 문구를 변경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종류입니다.

이와 같은 수정 사항이 최소한 18개 존재하지만, 그 내용을 많이 다룰 수 있는 일련의 비디오인 텍스트 비평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4-27절, 그들은 상륙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실패한 정복인 민수기 14장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탐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시편에서는 상황이 약간 바뀌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시편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광야에 던지리라 맹세하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이 지나면 이 세대에 그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사막에서 죽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씨를 나라들 가운데 뿌리고 여러 나라에 흠으실 것입니다. 민수기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글썄요, 열방 가운데 그들의 씨가 있다는 생각은 시편 기자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북쪽 왕국이 멸망한 뒤에도 앉아 계시는데, 그들은 그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편 기자에게서 다시 한 번 봅니다. 그것은 마치 사막 세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의 세대 및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을 합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여기에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많은 텍스트가 있지만 암시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휘적 연결의 일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바알브올과도 연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브올과 연합했습니다. 여덟 번의 제사는 죽은 자에게 바쳐지며 여기서는 단지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약간 변경되었지만 여기에서 이 두 텍스트와 전염병의 종말 사이의 명확한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재앙이 그치매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다시 말하지만, 복사되지 않은 동일한 문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본문과 민수기 20장 25절 및 비느하의 중보와 명확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죽은 자에게 여덟 번의 제사를 드린다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단지 과장법의 문제일까요? 그는 지금 이 사람들의 우상이나 신들이 죽었고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생각에 더 흥미로운 것은 그가 제시하는 해석의 정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염병이 퍼졌습니다.

Book of Numbers의 출처로 이동하면 여기 슬라이드 몇 개를 다시 넘겨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민수기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은 전염병의 종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습니다.

민수기에는 전염병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어떤 표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 기자가 실제로 설명하는 이야기의 해석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

이 시점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중보자 비느아가 출애굽기 시편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처럼 그는 온 민족을 위해 한 사람으로 서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 그 나라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편 기자가 그 모델에서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두 번째로 보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분은 중보의 기도이십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존중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비느하스의 놀라운 승영을 봅니다.

그에게 이를 의로 여겨 대대로 영원히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시편 기자가 분명히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에 대한 암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비느아는 이스라엘의 조상 중 하나인 아브라함보다 높아지는 높은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편 기자가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을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피니어스와 같은 행동을 해도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 특정 지점에서는 매우 고의적인 암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으려면 성경의 일부를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므리바 물가로 갑니다. 21번부터 13번까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책임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므리바 물가에서 모세는 한 가지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약간 다른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모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의 영을 거역하였으므로 그가 그의 입술로 경솔하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입술로 함부로 말해야 하는 곳으로 그를 밀어넣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특별한 경우에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민수기가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회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특별한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의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형벌의 순환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서 특정 구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정복하고 왕정을 세운 이후를 말합니다. 어린이 희생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아들과 딸을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아들을 불 속에 던져 제물로 바친 므낫세를 암시하는 것입니까? 그가 한 일의 결과로, 어쨌든 왕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들 앞에서 그들을 동정심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동정심에 대한 마지막 진술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죄를 짓고 그로 인해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럼 이 내용을 아주 빠르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의 출애굽기는 고백기도이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과 다릅니다. 죄를 고백하고 국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보를 강조하는 두 부분은 모세와 비느아였습니다. 특히 이 영상들을 함께 시청하신다면, 한 개인이 그토록 의로운 인간 개인으로 묘사되고, 또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그토록 적극적이라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두드러집니다.

중보자로 서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 질문은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은혜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사례를 강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편 기자는 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개인들과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당신은 그들을 기억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제 나에게도 같은 일을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 섹션을 마무리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이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시편과 성경을 재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살펴보고 싶은 슬라이드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106편과 107편을 연결하는 시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시편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유사한 내용이 시편 편집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은 한 가지 방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말하겠습니다.

시편이 병치되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시편 106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열방 중에서 모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유배 중입니다.

그는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음 시편의 시작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환난의 손에서 속량하시고 동서 서방 땅에서 모으셨으니 북쪽과 남쪽에서 온 민족들 가운데서. 그러므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시편 두 편을 함께 엮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편집자는 이 시편들을 병치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것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시편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종류의 상호작용을 봅니다. 이는 시편 편곡에 있어서 편집자와 편집자의 인식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 시편에 관해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시편의 위치에 관해 이 시편이 4권의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송영이 있는데, 이는 4권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제4권에는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성격 때문에 이 책은 흔히 모세서라고 불립니다.

왜 모세서라고 불리는가? 한 가지 이유는 이 시편 그룹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모세가 저자로 알려진 유일한 시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시편에 모세라는 이름이 여덟 번 나오는데 일곱 번이 이 특별한 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유일한 다른 시편은 시편 77편이고 그것이 나중에 시편에 추가되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논쟁이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된 다른 초기 사본을 살펴보면 모세가 실제로 그 시편의 원본이 아니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은 시편의 이 특정 부분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또한 사막 주제인 시편 95편, 106편, 106편을 이 작은 시편 모음집 안에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시대이자 시대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주제입니다. 시편 95편부터 99편까지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거나, 하나님이 왕이시거나,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또는 그 특정 시편에도 이와 유사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던 특정한 시대를 가리킨다. 이 점은 시편 136편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구절에서 하나님은 다른 왕인 바로, 옥, 시혼과 싸워 그들을 패배시키기 위해 싸우시는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시편 136편이 끝났습니다.

이제 한 편 더 남았습니다. 시편 106편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은 135개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David Emanuel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세션, 시편 106편, 틈새에 서서입니다.